

야채가게는 배추, 푸줏간은 고기 기증...김장 담아 이웃돕기

# 대인시장의 겨울은 사랑으로 따뜻했네

### “서민들에 받은 사랑, 서민들에 돌려줘야죠”



5일 오후 광주시 동구 대인시장에서 '대인시장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소속 상인 20여명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김치 200포기를 담은 뒤 활짝 웃고 있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어려운 사람들끼리 나눠야 따뜻할 겨울을 보낼 수 있죠.”

시장바다에 오랜만에 시끌벅적하다. 5일 오후 광주의 대표 재래시장으로 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대인시장에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김장 담기 행사가 열렸다.

양산에 빨간 양념을 잔뜩 들고 김치를 버무리고 있는 사람들은 서민경제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시장상인들. 자칭 ‘대인시장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20여명이다.

상인들은 비어있던 빈 점포가 광주비엔날레 전시장으로 활용되면서 시장이 잠시나마 활기를 되찾자 지역민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보자는 생각에서 최근 모임을 결성했다.

이날 김장 담기 행사는 출법식을 겸한 첫 번째 정기모임이었다.

김치 200포기를 담기 위해 상인들은 각자 주머니를 털고 자신들의 점포에서 팔 상품들을 가까이 내놓았다. 야채상인은 배추를 기증했고, 푸줏간 상인은 고기를 내놨다.

시장상인들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품물시장’의 이익금은 재료 구입에 사용됐다. 이렇게 하나하나 모아서 김치를 담그다보니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는 게 어쩌면 당연하다.

모임은 없었지만 상인들의 봉사활동이 처음은 아니다. 얼마 전에는 독거노인들을 위해 연탄 5천장을 구매해 동구청에 기증하는 등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왔다.

상인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

보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시장 안의 또 다른 시장인 ‘품물시장’을 운영하면서다. 품물시장은 상인들이 쓰지 않는 물건을 모아놓고, 자신이 원하는 가격을 붙여놓는 베품시장이다.

가격도 천차만별이다. 구식 라디오 3천원, 흑백 텔레비전은 골동품(?)까지 저가 때문에 무려 2만8천원. 그러나 대부분 물건은 1천~5천원 대이고 물건이 팔리고 안 팔리건 개의치 않는다.

이렇게 재미삼아 시작한 품물시

장이 입소문을 타면서 최근에는 일찌감치 품물시장을 찾아가고 매출도 늘었다. 품물이 많아지자 점포도 늘었고, 일부 시장 골목도 점거했다. 매출은 하루 10만원선.

처음에는 물건이 팔리면 상인들이 판매대금을 받아갔지만, 지금은 봉사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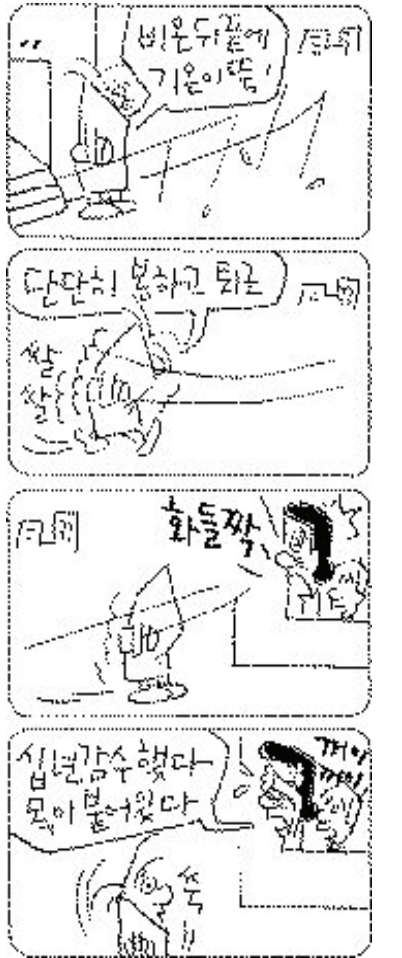
이날 담근 김치 200포기는 쇠고기 150근과 함께 관내 독거노인과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우리이웃’에 전달됐다.

간여름 점포를 운영하면서 품물시장 관리에 맡기고 있는 정안식(64)씨는 “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재래시장이 불우이웃을 돕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집에서 안 쓰는 물건을 품물시장에 기증해주시면,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유용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온 나라에 경기침체라는 먹구름이 드리워진 2008년 겨울, 대인시장의 품은 어느 때 보다 따뜻했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 나원침 (7014) 김장담기



다 좋은 건축·산업자재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제작 및 상담운영

▶ 서울본사 : 02) 3445-0943

▶ 광주본점 : 061) 337-0571

## 물류창고 불 6명 사망



5일 광주·전남지역에 대설특보속에서 최고 20cm의 많은 눈이 내렸다. 광주시 동구 문화전당 앞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눈보라 속에 몸을 움추린 채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추위는 7일까지 이어진 후 점차 풀릴 것으로 보인다. /최현배기자 choi@

5일 경기도 이천의 대형 물류창고에서 불이 나 인부 6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나머지 실종자 1명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날 화재는 낮 12시 10분경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L 물류창고에서 발생했다.

화재 직후 소방대원들은 거센 바람을 타고 불길이 크게 번지는 바람에 건물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다가 화재 발생 3시간35분만인 오후 3시45분경 큰 불이 잡히고 나서 지하층 냉장실 안에서 N냉동·냉장 인부 6명의 시신을 발견했다.

화재 당시 이 창고 지하층에서는 N냉동·냉장 인부 21명이 물품 분류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자 외에 인부 1명의 생사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 김모(30) 씨가 전신 화상을, 다른 인부 1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N냉동·냉장 인부들은 냉기가 밖으로 새지 않도록 셔터를 내린 채 작업해 화재와 함께 지하층에 유독가스가 차지만 일찍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지하층, 지상2층의 물류창고 1개동을 모두 태우고 3시간여만에 큰 불길이 잡혔다.

/연합뉴스

## 문국현 대표 징역 8월에 집유 2년

### 형 확정 땀 의원직 상실

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상위 순번 후보로 추천해주는 대가로 이항정 의원에게서 6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광만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 대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재정상태가 열악

해 특단의 선거비용 충당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총선을 치르기 어려운 창조한국당에 당채 매입대금 6억 원을 저리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이 당에 제공되게 했다는 점을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은 앞서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문 대표와 이 의원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문 대표는 항소할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

## 대설특보 속 주말·휴일 강추위

광주·전남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주말과 휴일인 6~7일은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될 전망이다. 이번 추위는 휴일인 7일까지 이어진 후 점차 풀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6일 광주·전남지역은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며 흐리고 눈이 온 후 후부터 차차 개개겠다”며 “이날 광주·전남지역은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되

겠다”고 예보했다. 6일 예상 적설량은 5~15cm이며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2도~영하 4도로 예상했다.

휴일인 7일 광주·전남지역은 구름이 많이 개개으며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전날보다 더욱 떨어질 영하 9도~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7도~10도로 예보됐다.

한편, 5일 광주·전남지역은 20cm가

량의 많은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와 강풍특보가 발효됐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이날 오후 함평과 영광에 대설경보를, 장성·영암·무안·목포 등 전남 5개 지역에 대설주의보를 내렸다.

또 여수·강진·완도 등 6개 지역에 강풍주의보를, 서해남부연안과 남해남부연안에는 풍랑경보를 발효했

다. 또 이날 밤 광주와 나주, 담양지역에 대설 예비특보를 발표할 예정이다.

5일 오후 5시 현재 광주·전남지역 적설량은 영광 19.5cm를 비롯한 영암 9.0cm, 무안 8cm, 함평 8cm, 목포 7.9cm, 장성 3cm, 완도 1.3cm, 진도 1.3cm, 광주 0.5cm를 기록했다.

대설특보 뿐 아니라 기온도 푹 떨어져 추운 날씨를 보였다. 이날 오후 안·목포 등 전남 5개 지역에 대설주의보를 기록했으며 영광 -5도, 순천 -2.5도, 장흥 -2.3도, 고흥 -1.5도, 목포 -1.6도를 기록했다. 기온은 밤 사이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출다 추위**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았으며 대체로 흐리고 눈이 내리겠다.

**12월 6일 (음 11월 9일)**  
◇전국날씨

광주	구름 많고 눈	-6~0℃
목포	흐리고 눈	-3~1℃
여수	구름 조금	-3~3℃
안동	흐리고 눈	-2~4℃
구례	구름 많고 눈	-3~2℃
해남	흐리고 눈	-3~4℃
장흥	구름 많고 눈	-3~4℃
고흥	구름 조금	-4~3℃
순천	구름 많고 눈	-2~2℃
영광	흐리고 눈	-8~-2℃
진도	흐리고 눈	-7~-1℃
전남	구름 많고 눈	-6~-1℃
충청	흐리고 눈	0~3℃

서해남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1.0~4.0m  
남해남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2.0~6.0m  
남해서부 앞바다=서~북풍 파고 2.0~4.0m  
남해남부 앞바다=서~북풍 파고 2.0~6.0m

목포 밀물 < 07:27 썰물 < 00:41  
19:54 밀물 < 12:49  
여수 밀물 < 02:37 썰물 < 14:59  
08:18 밀물 < 21:44

▲해돋이 07:27 ▲해질기 17:20  
▲달출 12:47 ▲달입 00:03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주요날씨

날씨	7(일)	8(월)	9(화)	10(수)	11(목)	12(금)
날씨	☀	☁	☀	☀	☀	☀
최저/최고	-6/8	2/7	3/9	3/9	-1/10	-2/10

## 예산안 심의 과정 발언 때문에... 전남도 교육위원 명예훼손 피소

전남도 교육위원이 예산안 심의과정의 발언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 지방 교육위원이 위원회 등에서 한 발언으로 인해 피소되는 것은 처음이어서 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남도 교육위원회 김모 위원(3일 3일 예산·결산위원회 질의에서 “지난달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의 발언을 문제 삼아 당사자인 박모 이사장이 명예훼손으로 나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발언 내용에 약간 개인 감정이 포함된 것은 시인하지만 교육위원으로서 주어진 의무와 권리를 범위 내에서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8일 나주의 모 고교와 이사장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23여 명의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로비를 받았기 때문 아니냐”고 의혹

을 제기했다.

그는 또 “24년 전 문제의 이사장이 자신이 설립하고 나서 부도난 병원을 금력과 권력을 동원, 몽땅 빼앗아갔고 이 사람 때문에 교도소에 갔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을 고소한 박 이사장은 “관련 예산은 학교 이사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확정된 것으로 비운운한 것이나 병원 부도 관련 발언, 구속 등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터무니없다”며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위원이 권력을 이용해 중상모략을 일삼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검은 최근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김 위원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호기자 lion@

## 외국인 절반 이상 “한국 공무원 부패”

국민권익위 여론 조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절반 이상이 ‘한국 공무원이 부패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 플러스’에 의뢰해 외국공관, 주한 상공회, 외국인 투자기업체에 근무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 200명을 대상으로 부패인식도 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 6.93% 포인트)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국 공무원 부패수준에 대해 ‘부패하다’는 응답은 50.5%로 ‘부패하지 않다’는 답변(17.5%)보다 33% 포인트 많았다.

‘부패하다’고 응답한 외국인 비

율은 지난해(45.5%)보다 증가했고, 부패인식지수(응답결과를 10점 만점으로 환산)도 지난해 4.16점에서 4.05점으로 악화됐다.

또 부패문제에 대한 기업활동 저해 정도에 대해 외국인의 58%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15%에 그쳤다.

특히 작년과 비교하면 ‘심각하다’는 응답은 39% 포인트 증가, 외국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선 부패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권익위는 분석했다.

한국기업의 윤리경영 수준에 대해선 ‘낮다’는 응답이 40.5%로 ‘높다’(19%)는 응답보다 훨씬 많았다.

/연합뉴스

## 하이킹 가려고 자전거 ‘슬쩍’

○친구들과 자전거 하이킹(hiking)을 가기 위해 자전거를 훔친 10대 중학생 5명이 경찰에 달미.

○광주북부경찰청에 따르면 광주모중학교간선 S(14)군 등 5명은 지난 달 8일 오후 6시에 북구 일곡동 D아파트 계단에 세워진 자전거 4대를 훔쳐다 달미.

○조사결과 S군 등은 범행 당일 담양군 한계골로 자전거 하이킹을 가려고 했지만 자전거가 부족하자 이 같은 짓을 저질렀으며, 아파트 CCTV 화면에 절도 장면이 포착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서 S군 등은 “친구들과 하이킹을 가려고 했는데 자전거가 부족하자 순간적인 욕망을 억제하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경찰은 이들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